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골 3:4)

주간총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7월 5일 금요일

6.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인 이해

이스라엘의 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자들의 배반 (에스겔 1-24; 미가 1-3, 6; 스바냐)

그릇된 지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поклон하게 만들고(호 6:4),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호 4:1), 하나님께서 주(主)가 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의외된 선지자들을 실어줬으며 폄박했다.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음란한 마음 때문이었다(호 5:4).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세상에서의 변명'을 추구하던 우둔하며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었다(렘 4:22).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온혜와 긍휼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리 떠나갔다(호 11:2). 이것이 압살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났고 책망 받아야 하는 이유였다(사 29:13). '내적 헌신'이 없던 이스라엘!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죄요 타락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렘 5:23),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부를 알고 싶어하며(렘 8:5-6), 마음의 강령만 대로 행하고(렘 13:10), 비방과 사악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책망하였다(렘 6:28).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어디 그뿐인가! 이스라엘은 현실의 안락함에 만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써(렘 5:3), 그들이 거하는 장소를 더러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은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패역한 곳을 좋아하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스 3:1-2). 이스라엘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평했고(렘 12:1-3), 이사야는 그들이 실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리색은 백성이라고도 혹평을 했었다(사 1:4-6).

사망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의 규례를 잊어서 궁중의 학과 미술가와 제비와 두루미보다 못한 백성이 되었다(렘 8:7). 도리어 자신들을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완고함에 사로잡힌 백성이 되었다(렘 2:23, 35).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서 멀어지자 이스라엘은 정적을 망치지 아니하고, 그 악을 부추기지 않는 재, 자기의 목적을 행해서 달라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거니(렘 8:2). 도리어 사랑하신 자비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을 굳게 하여 열조보다도 악을 더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다.

심판에 도달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리 돌이키려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호 5:4). 안타깝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미 1:9). 그들에게는 오직 더러운 죄를 불사르실 하나님의 분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렘 24:13).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적으로 회개하며 돌아키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고만하거져서 이제는 절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렘 24: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게까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렘 4:6-10; 사 59:13).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으며(렘 7:13, 25-28), 오히려 그들을 폄박하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렘 2:30).

이스라엘의 죄악의 극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모세가 일찍이 경고한 적이 있었다(신 9:24). 그래서 그는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리스' 산과 '제벨' 산에서 족목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려고 당부하였었다(신 27:12, 13).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가 동시에 놓여져 있었다(신 30:15).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말발굽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이었다(호 12:2, 3).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복음의 소리가 되었고, 그러나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그들은 그 재산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들의 배반의 극치는 십자가에 걸린 정절을 이루었다.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들을 죽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죄인의 행태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스스로 높아지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했던 이스라엘의 죄로 절절된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더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돌아키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스인이 그 기부를, 포박이 전례를 바를 수 없듯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렘 13:23), 마땅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생명의 사명을 결정짓는 가장 본능한 하나님의 증거이다(요 1:5, 12). 어려움에 봉착하면 아직도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도 두 가지 회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 그들의 무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지이기도 하다.

지난 수요일에 배 메시지

홍의 사람

"내가 얼굴에 땅이 돌아와서
식물을 먹고 광명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허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9)

서론

인간은 흙에서 시작되었고, 흙과 연관된 존재이다. 그것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존귀하며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에게 시기가 돌아갔고,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팔아먹었다. 영생에서 멀어졌고, 영생에서 멀어졌다. 아니, 그보다는 인간이 놓아지라는 욕심으로 멸망으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주권관'을 칭찬하고 독박잡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인간은 미련함에도 창조자를 떠난 먼지로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인간의 미련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몸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은 진흙덩어임을 알았음에도 4인,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음에도 10인, 시편 기자 역시 인간은 창조자의 노를 피할 수 없는 땅에서 취한 존재인임을 알았음에도 13인, 그런데 아담의 고집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듯이, 세상의 권력을 취한 인간들은 곧잘 하나님의 호소음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에 쉽게 빠지곤 했다. 별사설이 그랬듯이, 그는 자신이 가장 높은 줄 착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전의 모든 기쁨들을 자신의 속마음에서 홀을 두르는 도구로 사용했다(렘 5:23).

흙인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생령과 호흡과 만물이 주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창 17:25). 우리에게 호흡을 베푸시고 거주시는 분이 주(주님)시니 104:29, 우리들 지은 토기(창)가 하늘의 창조자 하나님이다(렘 18:2). 그러므로 만물이 어서서 자기 스스로를 때우지 마라(렘 17:1) 하라. 예민 13:33,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피조물(요 1:13). 하나님 7:18이라는 신 제1자(아버지) 한테로 12:1.

근본적인 계획

인간은 대부분 나뭇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근본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여긴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어야 하는 근본적인 계획이다(골 1:12-13). 그러므로 믿음을 놓고 정직하게 생각할 볼 것이 한 가지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신 근본적인 계획을 떠나서, 그대로 말로 하라(렘 1:12) 돌이키기 버리는 일로 본주의게 삶을 소모하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특히 그리스도인의 몸은 피 같으로 사신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아담에게서 기지 기지 얻은 수 없으며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제나 알아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 19:10,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히 4:13).

창조의 과정

하나님의 흙인 인간에 대한 수고는 창조과정에서 또 다시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을 있는 아무로 28:30(마 11:7). 더러운 영에게서 모로기 된 자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마 9:33, 34). 수하고도 무거운 짐들을 면히 하게 하신다(마 11:28).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거나 커지려고 하지는 마라(마 23:12). 마귀에게 9:34, 사탄에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말과 배에 대해지 말라(렘 19:10). 창조주에게서 떠나감은 절대로의 깨어지고 갈고여(렘 19:11). 범죄하는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렘 18:4). 오직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를 깨닫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라(고 3:16-17).

Turn Back

(Jeremiah 18:11~12)

*"So now then, speak to the men of Judah and against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saying
Thus says the Lord, Behold, I am fashioning calamity against you and devising a plan against you.
Oh turn back, each of you from his evil way, and reform your ways and your deeds."*

Today's Bible verses contain a merciful call from God to "each one of you". The Creator God is beseeching each one of His children to "turn back" from their evil way, and change/correct their ways and actions. When you consider how big a star is, this earth is not even bigger than a piece of dust in comparison. Yet, God is calling you, who are not even close to being the size of dust. His merciful voice truly wants to reach your heart. Indeed, God is merciful, but He is also just. Many forget that his judgment comes down on each sinner like His mercy comes down on each sinner.

Where there is change, there is hope. God's voice came to each evil one of His people, but they didn't accept it. They told God, "It's hopeless! For we are going to follow our own plans, and each of us will act according to the stubbornness of his evil heart". How sad to hear God's voice and not listen. Jesus did not come to be the minister of sin, but the destroyer of it. Each one of us has our own evil way about things. We have our own "Christian" method of doing things. It's this great way of ours, this selfish and prideful way, that God is calling to us to reform. He cares like no other. He offers hope to the hopeless.

What exactly does God want you to do? He wants you to "turn back, each of you from his evil way". What does it mean to turn back? It means to stop! Stand still! Do not go forward one more foot in your evil way. Turn around, and let your face be toward God, holiness, and heaven. Don't turn slowly, turn quickly! Hasten back! Begin moving in the right way and continue on that good course which is the reverse of your present one.

When does God want you to "turn back"? Now! Turn back immediately. Every step in the wrong direction makes it that much more to retrace. Every step away from God makes it that much more difficult to return. Further wandering will be calculated and willful; a bold rejection of the warning which is now so earnestly given. Listen up my friends! Never again may you have an opportunity to return. There is nothing certain about life save its uncertainty. To delay is dangerous! Think of how your robbing God of your service. It is a loss you cannot make up. Think of the people being injured by your life's example. Every reason pleads for you to "turn back" now, but for delay there is no excuse.

Who should "turn back"? Every one! God mentioned "each of you". He didn't say only those who have black hair or only those who think they need to. God knows that each one of us needs to "turn back". Every person has his/her own peculiar way of sin. No one is exempt from His call. Those of you who think of your neighbors sins more than your own need to refocus. We all need a special effectual

call to "turn back". Every one is now loving invited to "turn back".

Turn back from what? From your evil way. Every one needs to turn from their own way. Isaiah 53:6 reminds u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Amen. You need to turn back from your own personal sin, constitutional sin, or most frequent sin. For those of you who aren't sure what their favorite sin is, consider that into which you are most easily led or that which has already been most indulged by you. Also, think about that which irritates you most if you are rebuked. Personal sins sometimes are those for which you give up other sins; a covetous person will not be extravagant and a hypocrite will deny himself. Favorite sins usually are those which you are the most hesitant to part with. They are the ones you spend the most money, time, and energy over. It is from these kinds of sins that each one must "turn back" from.

What shall we turn to? To making your ways and doings good. Negative religion is not enough, there must be positive goodness. Think about it. Your general habits or ways must be made good as a whole. This includes your ways in reference to yourself and your doings toward both God and fellow human beings. Personal examina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Repentance is an absolute necessity. Turning around is not easy. To descend into sin is easy, but to retrace your steps, this is the work, this is the labor. Facing God is difficult. There is suffering, persecution, and tribulations. You can't do it yourself. Only by faith in the Lord Jesus can it be accomplished! Just look at His cross. It produces more repentance than anything in the world. Whoever believes in Jesus will have the Holy Spirit to lead them in the way everlasting.

The message we find here, in God's voice shows us His awesome love. What endurance He has displayed. What people refer to as "good Christians" are those that serve the Lord their own way. Don't be tricked. Don't be proud. Turn back now. Jeremiah bitterly wept over the Judah and Jerusalem people. Their pride was so strong. Just think about how they prided themselves over the Jerusalem temple. Come on, turn back now, each one of you. You need the cross, the only begotten Son. He wants to save you. He gave us the way. Every believer can do it. Don't go your own way, just go by faith. Isn't this a wonderful message God is giving us? Just look and obey His Word. His Word is eternal, living, and better than anything else in this world. Amen. ♣

개인들에게 말하라

(렘 18:11~12)



김성관 목사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각 자녀들에게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행로와 행사를 돌이켜 바꾸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거대한 우주에 비해 먼지만큼도 안될 만큼 보잘 것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각 개인에게 임하듯이 그분의 심판 또한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죄인에게 소망을 주신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 악한 그의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령하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죄의 대항자가 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그릇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의 길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혁하라고 외치십니다. 이에 대해 그 어떤 이도 하나님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화하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어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로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함과 천국을 향해 돌리십시오. 천천히 돌리십시오. 그러나 돌리십시오. 서둘러 재촉하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여서 현재 여러분 행로의 반대인 선한 행로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바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의 발걸음은 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땀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발걸음은 돌아오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더 이상 발걸음은 계산된 것이며 고집일 뿐이며 지금 간절하게 제공된 경고에 대한 강한 거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돌아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자체에는 불확실성이 구해낸 그 어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보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보살볼 수 없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이유들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한다면 불순종한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돌아서야 한다

누가 “돌아와야”합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각기”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에게만 혹은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 “돌이켜야” 함을 아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죄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 내 옆집 사람들이 보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라”는 특별한 유적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가 이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라

무엇으로부터 돌아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길로부터 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5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각자 개인적인 죄악, 구조적인 죄악 그리고 상습적인 죄악으로부터 돌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자신이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장 쉽게 이끌리는지, 또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만족시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책망을 받는다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죄악은 포기하지만 개인적인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강한 사람은 물질을 아가워함으로 사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식적인 사람은 그 자신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즐겨 행하는 죄는 늘 여러분과 함께 붙어 있으며 여러분은 그로부터 떨어지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대부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각 사람이 돌아야 하는 죄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음의 삶으로 돌아서라

그럼 무엇을 하려고 돌아집니까? 여러분의 행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의론적인 종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따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반적인 습관과 및 행위 일체가 선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자세와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성찰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죄를 따라 내려가는 것은 쉬워도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일이고 이것이 노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곤난되고 고통받고 있음이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해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돌아서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그들의 방법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에베레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키는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며 독생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가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오직 그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지금도 살아있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습니다. 아멘. ■

복된 발걸음 되게 하소서

이 정 훈 (안수절사, 8교구, 우크라이나 단기선교단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8교구 단기선교단은 그 동안 우크라이나의 4천9백30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 준비도 철저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의 밭의 그릇’이라고 했듯이 부족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 저는 몽골 사역을 하고 싶어서 자원하여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파송국이 우크라이나로 정해져서 다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러시아어가 몽골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1차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선교하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했음을 후회했습니다. 문득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되리라”(욥 1:2). 그러나 요나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니느웨성이 저주받기를 위하여 여호와와 다투는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돌며 40일이 지나니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의처야 했는데 단 하루 길을 돌며 외쳤을 때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저주의 성이 축복의 성이 된 것처럼, 8교구 단기선교단원 11명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약 2백7십만 명)에서부터 남서쪽 200km지점의 빈니차(약 38만9천 명)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2002년도에 충현교회 단기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현의 형제 자매들이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 택한 영혼들을 불러 달라고
2. 사역기간 동안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3. 선교사역 잘 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4. 귀국할 때까지 가정·자녀·모든 환경이 평안하도록
5.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김 연 근 (집사, 카자흐스탄B 단기선교단원)

미물만도 못한 죄인을 주의 자녀 삼아주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능력 없음을 타치기 없으시고 오히려 들어쓰시시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한 몸조차 주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여 지나고 보면 모두 죄 중에 헤매어 후회로 용서를 빌어야 할 일들 뿐인데 이제 한국도 아닌 먼 미국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오라는 명을 받고 보니 두렵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CMTC 교육훈련을 통하여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강사님들의 말씀으로 다소 위로받고 또 무를 꿔고 주 앞에 간구도 드렸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림과 현지어로 설명된 전도지를 준비하며 이것을 읽어주십사 하는 말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등 몇 구절의 전단 전단 전도 용어를 외우고 나니, 이제는 현지어인 만나면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준비된 듯 싶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지어 찬양곡을 몇 곡 함께 부르면서 울 듯도 곁하여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니 조금 더 위안이 되고 다소 기대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팀장님의 연세가 70이신데도 말씀 외우는 것, 찬양 가사 외우는 것이 어느 청년대원보다도 빠르고, 훈련연습시간에도 매일 먼저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일을 맡겨주시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음이 크시다고 대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니 소견이 됩니다. 기운이 떨어져 지쳤다가도 앞장 서신 장로님 모습을 보면 용기를 얻어 대원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어 카자흐스탄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순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발을 옥도로 가꾸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천 배, 만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전 대원을 영육간하게 지켜주소시옵시고 이 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여 주시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2년 마지막 CMTC 집중훈련(3차)

일정 : 17일(수) 09:00~22:00 장소 : 배다나홀 대상 : 전교인
*이까지 전교편을 받지 못한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부서	사역지	날짜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5일(금)~17일(수)
4교구	루마니아	7월 10일(수)~18일(목)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전행되게 하소서

몽골

10교구 단기선교단(15일~21일), 수흐바타르 생령계 주변 지역 선교

1.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내적 순복의 모습과 철저한 자신을 부인하는 심령을 허락하소서
2.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 서 예비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소서
3. 예배와 기도회, 고백회 전도사역, 빌립 전도사역, 어린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가림 부임이 항상 있게 하소서

우즈베키스탄

16교구 단기선교단(16일~24일), 누라와트·아프다스·이스눙한 지역 선교

1. 통역자를 비롯한 큰 대원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되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령이 되게 하소서
2. 사역할 지역을 정악하고 있는 익한 영혼들이 몰려가고 하 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3. 현저에서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가는 모든 교통편과 출입국 절차가 잘

슬리랑카

3교구 단기선교단(16일~26일), 마타라 지역 선교

1. 스리랑카 영혼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2. 사역과 이동간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3. 대원을 모두가 하나되고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탄자니아 A

대학부 단기선교단(16일~29일), 로고로·이랑가 지역 선교(남부)

1. 모든 선교의 사역과 일절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2. 모든 대원들이 탄자니아의 영혼을 사랑하여 준비된 영혼을 만나 복음전 하게 하소서
3. 황열병, 말라리아, 콜레라 등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하여 달마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탄자니아 B

탁아부 단기선교단(16일~29일), 도도마 지역 선교(북부)

1.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2. 탄자니아의 모든 성령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3. 정량과 현저 사역이 은혜 가운데 열매맺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8교구 단기선교단(19일~31일), 비니차 지역 선교

1.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대원 모두에게 충만케 하소서
2. 주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순직히 만날 수 있도록 대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3. 모든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담대히 선교에 전념하도록 하소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예바다부 선교단과 9교구 선교단, 17교구 선교단이 귀국했다. 그리고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가브리엘 선교단, 스리랑카로 떠났던 야명 선교단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 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희 병 (대학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이번에 대학부는 위의 이사가 말씀을 토대로 'Jesus! Send me!!!' 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이번엔 특히 단기선교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왔다. 목사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라고 하셨다. 조용히 찬양을 들으며 그 동안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도저히 나

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내놓으며 없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매년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나를 썩어신다고 부르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며 일꾼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 동안에는 나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날 산기도를 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였고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8월 초 떠나게 될 파테말라 단기선교도 그 전에는 많은 걱정과 부담감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내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파테말라의 그 영혼들도 매우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먼 선교지로만 나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현교회라는 공동체, 가정, 학교 등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GBS를 통해 얻은 기쁨

문희 원 (대학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연약의 피니라" (마 26:28)

이번 주 대학부 성경공부의 주제는 '성찬'이었다. 대학부의 GBS는 주일 예배의 본문을 연습하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4번째로 성찬에 대해 공부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엔 공부한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서 만찬하시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들에게 자신을 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했다.

교회의 성례인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나미지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리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까지도 얻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쁨을 충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줬으면 한다. 나아가 세계 선교를 통해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변영 현 (대학부)



이 줄잡다.

대학부 여름 수련회의 일정 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여러 프로그램들과 마음에 남는 감춰져 있는 말씀의 세상 사람들, 그 시간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충분히 못한 죄책감이 커져갔던 시간, 선교 준비 때문에 부담감이 늘어났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수련회를 통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만지셨으며 새롭게 빚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통해 체코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매일 모이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시간

체코팀원들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체코어로 공부한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까지 바꾸어 주신다. 어찌보면 황금같은 여름방학 시간에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우리를 광신도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젊음의 시간, 그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 나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쓰임 받길 원한다. 또한 우리 팀원 각자 각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로 전전할 것을 기도하며 소망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코 땅에 넘쳐나길 바라고, 우리 팀원 한 사람한 사람이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한다.

준비

김서 영 (대학부 교사)



이번 대학부 수련회에 들어가면서 'Jesus! send me' 라는 주제가 기대되기도 했지만 부담도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먼저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은 감정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우리 또한 사망에서 살아났듯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믿으므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복음의 열정은, 선교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삶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와 교제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 2:20)

구역탐방

오늘날의 주의 만찬

3교구 대림구역 / 구역장 박애경 집사



대림구역은 총현의 만나에서 안내하는 대로 주간총현의 설교 본문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었다. 그래서 신변잡기적이거나 초점에서 벗어나는 말없이, 바로 '성찬'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았다.

구역원들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행사와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성찬 때에도 성찬의 경건한 분위기와 형식이 매료되어 성찬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잊곤 하는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았다. 천주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매료되는 것도 주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나누었다. 또한 성찬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지는 것도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누었다. 구역의 이스라엘은 겨우 양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추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성찬을 형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나누고 형식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고 권유했다. 특히 한 성도는 성찬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신도 자기가 죄인임을 강하게 느끼고 회개하고자 할 때는 성찬 때 감동이 오는데 교만해져서 죄에 대한 인식이 들지 않을 때는 성찬이 무의미하게 다가온다고 고백했으며,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었다.

가장 핵심적으로 구역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씀은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행적을 찬양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죽으심에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며 죄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이 어떻게 한 신 것은 그의 병고침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었단 것이다. 한 성도는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 전하기를 즐겼으며 '예수를 믿으니 뭐가 좋더라' 하고 행위와 인간의 삶의 결과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대림 구역원들의 고백과 간증이 총현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권오성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진재권 ♥ 신옥순' 부부를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 내외의 전도로 총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재권 성도는 엄격한 유교 집안의 가정으로 자라 자라고 성교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평생을 살 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을 몹시 불편하여 일 년 중 반은 아파다니며 평안이 없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특히 매리거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픈 몸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권하여 신옥순 성도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예배 때까지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마음이었는데 6개월을 다닌 지금은 남편도 함께 나와 열심히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 구원이 확실한지 확고하지는 않지만,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지요.

(한숙정 통신원)

양요실

1교구 이해철 성도(남) 간암 말기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환자 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3교구 임종호 씨(남75세) 직장암으로 두 번 수술하였습니다. 장준 숙 씨(여72세) 유방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두 분은 임종남 성도님의 친정 부모님 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7교구 오선진 성도(남74세) 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리브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 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삭이 들에 나 가 목장을 하다가 야브라함의 종을 만났다는 아름다운 여인 리 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어린 이삭에게 리브가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루어 나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중 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러 가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한 민족이 네 복중에서 태어나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 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 다. 여기에 얽매서 리브가의 임부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리브가가 동원한 잘못된 방법들이 오히려 그녀 자신과 자식들로 하여금 힘든 고통을 겪게 하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리브가의 얼굴과 눈은 작은 아들만 향합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에게 에 겠을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아들에게 얼마나 아픈 고통을 겪게 할까요? 부모 의 편애로 인하여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사가 이방인 들을 사귀고 점점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창 26:34-35). 큰 아들 에서는 부 모의 마음에 관심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 장자에게 축복해 주겠거 다 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그녀에게 죽신 약속의 복, 곧 아픔의 복을 받기 위해 나뭇 남을 향한 신앙보다는 점점 자신의 피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의 자식들에게 모든 세월 동안 지속되는 슬픔을 안겨줍니다(창 27:41-43).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아들 야곱과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인생 여정을 끝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여사의 주권과 신실함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시 33:9-10).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가운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 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창 14:12). 어머니의 임무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자 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계획과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가야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 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령을 의지하라."(창 3:3-5).

다들 주님 믿고

317장 여서 돌아오오

누가복음 15장 18~24절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의 방자의 비유 말씀을 토대로 1943년경 전쟁터 목사(1894~1968)가 작정한 이 찬송은, 전쟁터 목사가 출판하던 월간지(새생애)에 처음 수록되었다. 당시 평양에서 유년 공부를 하던 천천학원 박재호 목 사(1922~)가 처음 곡을 붙였다. 시인 박서로사 문사선교회 열심이었던 작시자는 '네 설교 중에 "홀어머니를 버리고 나갔던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고 전해진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홀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깊은 밤에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은 열려 있고 방탕 행위를 하며 지냈던 어머니는 낯선 늙은이를 데리고 나와 놓고 계셨다. 그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혹시 무서운 짐승이나 독물이 들 어와 어머니를 해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하고 묻자 어머니는 기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내가 난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혹시 네가 집에 돌아왔다가 문이 닫혔으면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갈까봐 문 열어 두었다. 혹시 돌아오긴 했 어도 날 깨우지 못해 그대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불을 켜 놓았던 것이지"라고 하였다.

- 1절: 여서 돌아오오 여서 돌아오오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담하고 못 만으로라도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해보다 넓고 넓어
- 2절: 여서 돌아오오 여서 돌아오오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 놓고 마음 열어주시니 나간 자들 돌리미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 3절: 여서 돌아오오 여서 돌아오오 오오 새벽 맞아 이리도 주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여서 돌아오오 여서

오늘도 대문 열려 놓고 마음 졸이면서 큰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인 회개로써 주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찬송하여야 할 것이다. 따뜻하고 넓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정원학)

교회 권위주의의 순종

박 경 배 (외선부 교사)

물리학에는 열역학 제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떠한 물체라도 그 형태가 변할 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쉬운 예로, 불에 타고 있는 종이는 구성성분이 열, 물, 탄소 등으로 변하는 것일 뿐 종이 자체가 지녔던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영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방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간파하신 분들이나, 특별히 영적 전쟁만을 전담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비방이나 불평 등은 전적으로 금기시 됩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후세계 기저는 신적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邪術)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것이며, 귀신(邪神)에게 제사지내는 것과 같다고 명시합니다(삼상 15:22). 즉, 우리 교회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에 대해 비방하고 불평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개인적으로 그 영혼에게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 특정교회의 출석교인이 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교회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체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에 따른 예배형식, 기타 선교교회 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교회권위주의의 순종은 성도로서의 의무이기 이전에 권위의 감속으로 인한 자발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세습스럽게 언급될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난 왜 천 원을 내고 있는 것이지?

김 범 진 (중동부 교사)



5부 예배 시간이었다. 그 날의 성경본문 말씀을 읽은 후에 예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정성껏 준비한 주일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을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책 사기에 몰려있던 천 원짜리 한 장을 헌금통이 올 때쯤 꺼내어 헌금했다. 헌금을 넣고 나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왜 오늘도 천 원을 넣었지?", '저 사람은 왜 저리 부끄러운 듯이 감추었던 것을 몰래 누구에게 주는 것처럼 짚개 하는 것이지?', '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 원을 넣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관찰하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단지 타성에 젖어 아무런 생각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로트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성경사전을 이용하여 헌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보았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 내용이 나온다. 모범적인 마음 자세로 헌금을 낸 이 과부에게 주님은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믿음에 따라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나,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주님은 이를 기뻐하신 것이다. 타성에 젖은 나의 주일 헌금에는 과부와 같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절절 사리지고 무디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마라톤 것 뿐 아니라 저자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고후 8:5). 이 말씀에서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헌금자의 태도가 언급되었다. 즉, 헌금 시간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이다. 이외에도 은밀하게(마 6:3), 대가를 바라지 않고(마 10:8), 자원하는(고후 8:3)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이 헌금자의 바른 태도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의무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사명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헌금을 낼 때는 이러한 지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 액수가 어떻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물리치고 함께 드리는 헌금 시간으로 맞이하였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감사에 대한 신앙고백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증헌교회 에바다부에 몸담으면서

구 철 영 (에바다부)

태어날 때 의뢰전의 실수로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꼽으라면, 수업동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수업 년 동안 막연하게 독학해야 했던 청년기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에바다부에 첫 발을 내딛은 때가 1998년 2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혼에 거주하는 관계로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끔 나갔기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기도모임 장소인 태동원에서 믿음의 견실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본격적으로 선교에 뜻을 갖고 증헌교회 에바다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 뜨거운 사랑의 변별을 느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니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하 통역사와 노트북 대필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나 다름이 없던 소수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교회에서 준비한 수하 통역사와 자막통역은, 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연세대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할말부야를 연발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인연을 맺은 우리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았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소수의 아픔을 갖고 있는 청각장애 교인들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배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주의 자녀라는 전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탐 욕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수 7:1).

아간은 여러고 성의 멸망 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하였 습니다.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6:17-18). 결국 백성들은 작은 아이 성 전루에서 실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뜻을 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슬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잠)고 말씀하시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십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한 것도 '죄' 때문이었지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지은 죄는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지체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제비 뽑아서 공포소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합니다(Calvin).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의류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7:21). 모든 죄는 먼저 불로로 삼 3:6; 사 16:1; 삼하 11:2) 시작됩니다. 죄가 많아질 것을 보고,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겨 결국 사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요일 2:16).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바벨론의 의류는 그가 얻고자 하는 명성입니다. 금과 은은 부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죄의 대부분 도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권환익 기자)

